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6

하나님을 사랑한 욥

(욥기)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나요?
몸이 아프거나,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옛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욥’이었죠.

하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한마디로 나라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가진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성실히 따랐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욥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이었죠!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아무런 이유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필필.
그거 하나님께서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십쇼.
저렇게 재산도 많고 가정도 화목한 사람인데
누군들 하나님을 안 좋아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걸
빼앗으신다면, 욥은 단번에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배신 할 겁니다. 필필필필.”**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어디 한 번 네 마음대로 욥이 가진 것을
배배앗아보아라.
대신에, 욥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선 안 될 것이다.”**

어느 날, 욥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인 한 명이 부리나케 달려왔죠.

**“주인님 주인님! 큰 일 났습니다!
저희가 소와 나귀 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나라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랑 나귀들을
죄다 죽여버렸습니다!
게다가 같이 일하던 다른 하인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겨우 도망나왔다구요!”**

욥이 놀랄새도 없이 다른 하인이 또 달려왔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주인님의 낙타와 하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쩌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 또 다른 하인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나으리, 나으리! 놀라지 마십시오..
나으리의 자녀분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강풍에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깔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흑흑...”**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끔찍한 소식을 연달아 들은 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엉엉 통곡을 했죠.
하지만 욥은 이내 정신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 손이었는데 다시 빈 손이 되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주님의 뜻대로
그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는 약이 바짝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건
자기 몸이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사람들이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못 견디는 법이라구요!
과연 욥이 몸에 병이 생겨도 하나님을 따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킁킁.”**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너의 뜻대로 욥을 시험해보거라.
다만, 욥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니라.”**

사탄은 욥을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나서는
욥에게 끔찍한 피부병을 안겨주었어요!

**“아이구 가려워, 아이구 가려워...
이거 한 시도 긁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구나.
아이구 가려워...아이구 가려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성한 곳이 없었고, 온 몸에 피가 날 때까지
몸을 긁어야 했지만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욥이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주려고
찾아왔지만 생각보다 욥의 피부병이
심하고 몇날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자
욥에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욥, 아무래도 이렇게
큰 병이 걸릴 정도면, 자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겠는가?”**

**“맞네, 맞아. 이제 그만 숨기고
우리한테 털어놔보게.
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건가?”**

**“허... 참! 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고 다닌 모양이구만!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아! 에헴!”**

가엾은 욥...가족과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친구들조차
그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법도 하죠.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과
고통들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저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면
기꺼이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알려주시고
제 옆에서 의롭지 않은 말을 하는
저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끔찍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도
욥의 굳건한 믿음을 흔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욥에게
큰 복을 내려주었어요.

욥에게 다시 일곱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주셨고
전보다 무려 두 배나 더 많은 재산을 내려주셨죠.

욥은 다시 행복해졌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